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말해서는 안 되는 욕망: 지킬 박사와 어터슨 씨의 불안한/불온한 섹슈얼리티

최수정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이하 『지킬과 하이드』로 표기)은 런던 거리를 걷던 어터슨 씨(Mr. Utterson)가 산책의 동반자인 엔필드 씨(Mr. Enfield)로부터 자신들이 현재 서 있는 뒷골목(by-street)의 한 뒷문 앞에서 하이드 씨(Mr. Hyde)를 목격한 일을 전해들은 뒤, 집으로 돌아와 금고의 “가장 은밀한 부분”(the most private part)에 넣어둔 지킬 박사(Dr. Jekyll)의 유언장을 꺼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킬의 사망이나 3개월 이상의 “실종이나 설명되지 않은 부재”(disappearance or unexplained absence; 261) 시에 하이드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려는 유언장의 내용은 어터슨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지킬의 “광기”(madness)를, 엔필드의 목격담을 들은 뒤에는 “불명예”(disgrace; 262)를 우려하게 만든다. 서사의 시간상 끝부분에서 이 도입부는 다시 변주된다. 「창가에서의 일」(“Incident at the Window”) 장에서 언제나처럼 함께 산책을 하던 어느 일요일 어터슨과 엔필드는 처음의 그 장소, 즉 지킬의 집으로 통하는 뒷문 앞에 다시 멈춰서고 엄청난 공포의 일별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말이 거의 말해지기도 전에, 그[지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고, 아래에 있는 두 신사들의 피마저 얼어붙게 할 만한 그런 비참한 공포와 절망이 잇따랐다. 창문이 즉시 닫혀버렸기에 그들은 이를 아주 잠시 일별했을 뿐이지만, 그 일별만으로 충분했기에 그들은 한 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 코트를 떠났다. 그들은 뒷골목을 가로지르면서도 침묵했고, 일요일임에도 여전히 약간의 삶의 움직임이 있는 이웃한 대로변에 다다르고서야 마침내 어터슨 씨가 몸을 돌려 그의 동반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둘 다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상응하는 공포가 있었다.

“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어터슨 씨가 말했다.

하지만 엔필드 씨는 그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침묵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¹⁾

1) 이후 “terror”와 “horror”, “alarm”은 구분 없이 “공포”로, “fear”는 “두려움”으로 번역한다.

But the words were hardly uttered, before the smile was struck out of his face and succeeded by an expression of such abject terror and despair, as froze the very blood of the two gentlemen below. They saw it but for a glimpse, for the window was instantly thrust down; but that glimpse had been sufficient, and they turned and left the court without a word. In silence, too, they traversed the bystreet; and it was not until they had come into a neighbouring thoroughfare, where even upon a Sunday there were still some stirrings of life, that Mr. Utterson at last turned and looked at his companion. They were both pale; and there was an answering horror in their eyes.

“God forgive us, God forgive us,” said Mr. Utterson.

But Mr. Enfield only nodded his head very seriously, and walked on once more in silence. (287)

작품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이 장면에서, 어터슨과 엔필드는 지킬의 얼굴에 나타난 “비참한 공포와 절망”을 “일별”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이어지는 「마지막 밤」(“The Last Night”) 장은 그날 밤 런던에서 “가장 조용한 방”(the quietest room; 295)인 지킬의 서재(cabinet)를 부수고 들어간 어터슨이 방 깊숙한 곳에서 고쳐 쓴 유언장과 지킬의 편지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끝난다. “박사의 손으로 쓰여진”(in the doctor’s hand) 봉투 위에는 “어터슨 씨의 이름”(the name of Mr. Utterson)이 선명히 적혀 있고, 그 안에서 꺼낸 유언장에서 “변호사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끼며 에드워드 하이드의 이름이 있던 위치에서 가브리엘 존 어터슨의 이름을 읽는다”(in place of the name of Edward Hyde, the lawyer, with indescribable amazement, read the name of Gabriel John Utterson; 297). 지킬의 연구실에 은닉해 있던 하이드가 이 문서를 남겨둔 이유를 의아해하던 어터슨은 “박사의 손으로 쓰여진” 다른 쪽지를 발견한다. 그가 사건의 진상을 알려줄 이 쪽지를 읽기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Because I fear)이며, 이어지는 “신이여, 제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게 해주옵소서!”(God grant I have no cause for it!; 298)라는 탄원은 “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부르짖던 앞서의 공포와 통한다.

이 글은 이 공포가 당대의 호모포비아적 불안을 반영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지킬/하이드라는 분열된 자아의 “이중성”(duality)이 당대에 함의했던 동성애적 가능성을 밝히고 그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이성애적 남성유대 안에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적 감시기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킬과 하이드』의 남성 호모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비평들은 크게 나누어 둘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 스티븐슨 자신의 정신분석학적 관심사에 주목하여 지킬/하이드라는 분열된 자아를 당대 정신분석학 담론 하에서 재현된 남성 호모섹슈얼의 전형으로 읽거나, 혹은 푸코(Michel

Foucault)적인 역사관에 기반하여 당대의 규범적 남성 주체가 어떻게 내면화된 호모포비아적 불안을 통해 규제되고 구성되는지에 방점을 둔다. 이 글은 『지킬과 하이드』가 이 두 개의 비평적 지평을 모두 가능케 하는 텍스트로서 어떻게 남성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당대의 정신분석학적 담론과 역사적 반응을 교차케 하는지에 주목한다. 공격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징적 분리를 반영하는 낮과 밤, 거리와 집안 등으로 구획화된 당대 런던의 지형도에서 동성애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름 없는 범죄”(nameless offence)였으며, 이를 들추어 공적인 스캔들로 만드는 것은 동성사회적 연대에 의존하는 남성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킬과 하이드』에서 지킬과 어터슨을 비롯한 남성들의 사적 영역은 끊임없이 그들 자신의 공포에 의해 침범되고 위협받으며, 하이드는 이러한 경계 넘나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하이드가 환기하는 호모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이 당대 규범적 남성의 전형인 어터슨에게 전이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불온한” 섹슈얼리티가 당대의 이성애적 남성성의 기저임을 밝힌다.

『지킬과 하이드』의 서사를 이끄는 핵심적인 원동력은 작중 그 누구보다도 어터슨이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이유 모를 두려움과 지킬의 얼굴에서 어터슨과 엔필드의 눈으로 전이되어 말문을 막고 그들을 침묵시킨 알 수 없는 공포다. 작품은 독신·백인·중산층·전문직·이성애자 남성인 어터슨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하이드로 상징되는 불가해한 공포를 쫓는다. 이 공포는 때로는 하이드를 목격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며, 때로는 집안에 숨어 있는 하이드(의 형상을 한 지킬)의 존재에 대한 하인들의 반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킬(하이드) 본인과 어터슨이 느끼는 공포다.

어터슨의 악몽은 하이드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노라는 지킬의 이상한 유언장에 그런 지킬의 수표를 (무려 지킬의 서재 뒷문 앞에서 목격된) 하이드가 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았노라는 엔필드의 증언이 덧입혀지면서 시작된다. 자신과 지킬의 가장 오래된 친구인 래니언 박사(Dr. Lanyon)가 하이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단언하는 것을 듣자 어터슨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그의 상상력 또한 [무언가에] 사로잡히거나 차라리 노예가 되어버린다”(his imagination also was engaged or rather enslaved). 커튼이 쳐진 방 안에서 어터슨이 꾸는 두 개의 악몽은 그가 하이드를, 더 정확하게는 지킬과 하이드의 관계에 대해 어떤 의혹을 품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먼저 그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이미지는 “한밤의 도시”(a nocturnal city)를 밝히는 램프 불빛과 그 불빛 아래 뒷골목을 “빠르게 걸어가는 한 남자의 형상”(a figure of a man walking swiftly)이다. 그 길에서 부딪힌 소녀를 짓밟고 가버리는 하이드의 무자비한 행동은 그의 형상이 “램프 불빛으로 밝혀진 도시의 드넓은 미로를 통과하며, 모든 길목마다 아이를 짓밟고 그녀의 비명소리를 남겨놓는다”(move . . . through wider labyrinths of lamplighted city, and at every street corner crush a child and leave her screaming; 263) 장면으

로 재현된다. 다음으로 그가 보는 장면은 전적으로 어터슨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실상 전자보다도 더 자주 머릿속에 출몰하여 그를 괴롭히는 이미지가 된다.

아니면 그는 친구가 꿈에 웃음지으며 누워 잠든 부유한 저택의 한 방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 방의 문이 열리고, 침대 커튼이 뜯겨나가고, 잠든 이가 소환되며, 그리고 아아! 그의 옆에 권력을 쥔 인물이 서있고 그 고요한 한밤중에마저도 그는 일어나 분부를 받들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상 속 그 인물이 변호사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Or else he would see a room in a rich house, where his friend lay asleep, dreaming and smiling at his dreams; and then the door of that room would be opened, the curtains of the bed plucked apart, the sleeper recalled, and lo! there would stand by his side a figure to whom power was given, and even at that dead hour, he must rise and do its bidding. The figure in these two phases haunted the lawyer all night. (263)

어터슨의 상상 속에서 하이드는 지킬의 가장 은밀한 방 안까지 멋대로 숨어드는 침입자이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방치하는 “친우의 이상한 기호 혹은 속박”(his friend's strange preference or bondage; 264)은 그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어터슨이 의심하는 지킬의 “이상한 기호 혹은 속박”이 당대 빅토리아조 사회의 큰 불안요소였던 남성들의 호모섹슈얼리티를 암시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생물 [하이드]이 도둑처럼 해리[지킬]의 침대맡에 숨어드는”(this creature stealing like a thief to Harry's bedside; 267-68) 것을 두고 볼 수 없노라는 어터슨의 다짐이 잘 말해주듯이, “젊은 하이드”(young Hyde; 270)가 중년의 지킬과 맺는 관계는 범죄가 횡행하는 한밤의 뒷골목과 한 남성의 은밀한 “침대맡”을 배경으로 상상된다. “삶의 제정신이고 관습적인 면을 사랑하는 이”(a lover of the sane and customary sides of life; 261)들의 대변인인 어터슨에게 이 상상은 자연스럽게 지킬이 하이드에게 헐박당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또 그 빌미가 되었을 지킬의 과거에 대한 회고로 이어진다. “젊었을 적 그는 야만적이었다. 틀림없이 오래 전이겠지만, 신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지. 그래, 이건 틀림없이 어떤 오래된 죄의 유령이고, 어떤 감추어진 불명예의 종양인 것이다”(He was wild when he was young; a long while ago to be sure; but in the law of God,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Ay, it must be that; the ghost of some old sin, the cancer of some concealed disgrace). 하지만 하이드가 단순의 지킬을 헐박하고 있을 뿐이며 이 “감추어진 불명예”가 그저 과거사에 불과하다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어터슨조차 저지른 적 있는 과거의 “많은 유해한 것들”(the many ill things he had done)을 하이드도 행한 적 있을 게 틀림없으니 만약 그의 “어두운 비밀”(black secrets; 267)을 찾아낸다면 지킬에게서 그를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터슨의 더

큰 불안은 혹시 하이드가 “헨리 지킬이 아끼는 이”(Henry Jekyll’s favourite; 274)일 지 모른다는 의혹에서 온다. 때문에 그는 하이드의 살인 흉기가 자신이 지킬에게 선물했던 지팡이라는 점에, 소호(Soho) 거리에 있는 하이드의 집 안에 “(어터슨이 추정하건대) 헨리 지킬에게서 받은 선물”(a gift [as Utterson supposed] from Henry Jekyll; 275)인 액자가 걸려 있음에 동요한다.

어터슨은 지킬이 하이드와 동성애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위해 분투하지만, 오히려 그 노력에 의해 의혹은 더욱 커지지만 할 뿐이다. 하이드가 살인범으로 쫓기게 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지킬은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셈이지만, 여전히 어터슨은 지킬이 “그 친구를 숨겨줄 만큼 미치지는”(mad enough to hide this fellow; 278) 않았는지 우려하고, 지킬이 협박편지를 보여주며 그를 설득한 뒤에도 이 의혹을 거두지 못한다. 문제의 협박편지가 집사의 눈을 피해 “연구실 문을 통해 전해졌음을, 혹은 어쩌면 서재 안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음”(the letter had come by the laboratory door; possibly, indeed, it had been written in the cabinet) 간파한 어터슨은 “그의 두려움이 재개되는”(his fears renewed; 279) 것을 느끼며 불안을 키운다. 필적 전문가인 게스트 씨(Mr. Guest)를 통해 이 편지를 쓴 것이 다름아닌 지킬 본인임을 알게 된 어터슨은 자신의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었음을 확신하며 탄식한다. “헨리 지킬이 살인자를 위해 위조를 하다니!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Henry Jekyll forge for a murderer!” And his blood ran cold in his veins; 281). 경찰 수사에 의해 “하이드의 과거사 대부분”(Much of his past)이 밝혀지면서 어터슨이 지킬과 하이드의 동성애적 관계에 대한 확신을 굳혔으리라는 점도 짐작 가능한데, “그와 어울리는 수상한 이들”(his strange associates)과 함께 행했을 “악덕한 생활”(his vile life)이 당대에 연상시켰을 행위가 바로 “남색”(sodomy)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평자들이 지적하듯 『지킬과 하이드』는 당대 남성사회에서의 억압과 욕망, 나아가 당대 남성성의 규범에 대한 사유로 가득한 “남성들의 이야기”다.²⁾ 계급(중·상류층)과 섹슈얼리티(이성애자)를 아우르는 이들의 규범적 남성성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2) 히쓰(Stephen Heath)는 『지킬과 하이드』의 주제는 “숨겨진 남성, 즉 동물, 범죄자, 성도착 [자]의 출몰이며, 성도착이 남성들의 서사이자 이야기”(the emergence of the hidden male: the animal, the criminal, *perversion*. Perversion is men’s narrative and their story; 104; 강조는 원저자)라고 주장한다. 라고(Jane V. Rago)는 작품이 “남성들의 서사”임에는 동의하지만 “숨겨진 남성의 출몰”을 공포의 근원으로 풀이하는 히쓰의 해석과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그가 보기에 서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아를 보이지 않게, 즉 자연스럽고 정상이며 재현 불가능하게끔 해주는 타자에게 이름을 붙이려는 노력”(an effort to name the other that renders the self invisible and therefore natural, normal, and unrepresentable; 284)에서 비롯되는 남성들의 신경증적 반응이다.

이데올로기의 주된 동력은 남성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다. 셋지윅(Eve Kosofsky Sedgwick)이 “동성애공황”(homosexual panic)이라 명명한 이 특수한 기제는 사실상 기존의 남성연대에 속한 모든 남성 구성원들, 특히 이성애자 남성들을 겨냥하는 통제의 수단이다. “호모섹슈얼이 아닌 것으로 동일시된 남성이 호모포비아적 협박가능성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되는 기제, 그들 자신의 삶에 뻗친 이데올로기적 촉수”(the mechanisms, the ideological tentacles into their own lives, by which nonhomosexual-identified men were subject to control through homophobic blackmailability; 90)로서 내면화된 “동성애공황”은 어터슨과 같은 “호모섹슈얼이 아닌 남성”에게 더 강하게 작동한다. 결국 이 불안은 실제로 발각된 동성애 스캔들에 대한 공포보다 자신이 호모섹슈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기반한다. 이 공포는 그 근원을 “말할 수 없는” 점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 역시 셋지윅에 따르면 이 형언불가의 공포는 19세기 말까지 유행했던 “고딕문학의 가장 독특한 수사법 중 하나”(one of the most distinctive of Gothic tropes)였으며, “이 [공포의] 바로 그 이름없음, 비밀도 물론 사회적 통제의 형태였다”(Of course, its very namelessness, its secrecy, was a form of social control; 94). 이러한 맥락에서 작중 하이드가 자아내는 공포가 언어화 되지 못한 채 그저 “무언가”(something)라는 수사에 의해서만 발화된다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결국 『지킬과 하이드』의 서사 전체를 장악하는 공포와 불안의 상당부분은 “동성애공황”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어터슨은 이를 가장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는 그가 중산층·이성애자 남성으로서 자신의 정상성에 대한 확신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작품은 처음부터 “타락하는 남성들의 삶에 있어 최후의 평판 좋은 지인이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일 운명”(the last reputable acquaintance and the last good influence in the lives of down-going men)을 지닌, “감정이 퇴보한”(backward in sentiment; 255) 어터슨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남성 지인들을 향한 그의 “애정”(affections)이 철저하게 감정적인·성적인 것을 배제한 유대일 뿐임을 역설한다.

그는 기껏해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의 우정조차 좋은 본성에서 나오는 포용성 같은 데 기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우연히 형성된 교우관계를 받아들이는 평범한 남자의 기준이었고, 변호사의 방식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친지이거나 가장 오래 알아온 이들이었고, 그의 애착은 담쟁이덩굴처럼 시간에 따라 자라날 뿐 그 대상이 [그 애착을 받기에] 적절함을 시사하지는 않았다.

He was undemonstrative at the best, and even his friendships seemed

to be founded in a similar catholicity of good-nature. It is the mark of a modest man to accept his friendly circle readymade from the hands of opportunity; and that was the lawyer's way. His friends were those of his own blood or those whom he had known the longest; his affection, like ivy, were the growth of time, they implied no aptness in the object. (255-56)

이 대목의 서술은 가장 보통의 남성인 어터슨이 다른 남성들과 맺는 “동성사회적”(homosocial) 관계가 자칫 “동성애적” 의혹을 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지막 문장이다. 어터슨의 “애착”의 “대상”이 주관적으로 선별된다기보다는 “친지이거나 가장 오래 알아온 이들”을 향한다는 서술이 환기하는 것은 동성사회적 연대에 의해 유지되는 당대 남성사회에서 “애착”의 대상을 결정하는데 특정한 기호가 개입할 수 있노라는 문제적 가능성이다. “우정조차 좋은 본성에서 나오는 포용성 같은 데 기반”할 뿐 결코 감정이나 취향의 차원에서 친구를 택하지 않는 어터슨은 동성애적 가능성에 대한 과잉공포에 기대어서만 가까스로 유지될 수 있는 당대 남성유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지킬과 하이드』는 그런 어터슨이 속한 세계 곳곳에 도사린 호모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하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이중성”(duality)과 그들간의 “협박가능성”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어터슨의 악몽은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고딕적 이미지로 재현한다. 다른 남성의 은밀한 침대맡에 숨어드는 남성의 이미지는 당연하거니와, 당대 빅토리아조 사회에서는 도시의 밤거리를 모종의 이유로 쏘다니는 남성들의 이미지조차도 동성애적 행위를 연상시켰다. 엔필드가 하이드를 목격한 밤 방문했던 “세상의 끝 어딘가”(some place at the end of the world; 257)는 런던의 서쪽으로서, 동성애적 행위가 횡행하는 곳으로서 가장 쉽게 연상되던 웨스트엔드(West End) 부근을 암시한다.³⁾ 1871년 볼튼(Ernest Boulton; a.k.a. Stella)과 파크(Frederick W. Park; a.k.a. Fanny)가 여성의 옷을 입은 채 스트랜드 극장(Strand Theatre)에서 검거된 사건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호모섹슈얼 스캔들 중 하나였고, 1889년에는 클리브랜드 스트리트(Cleveland Street)에서 벌어진 남성간의 매춘행위가 경찰에 발각된다. 1895년 와일드(Oscar Wilde)가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언급된 지역은 하이드 공원(Hyde Park)

3) 엔필드는 이 지역에서 “동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한 작은 사내”(a little man who was stumping along eastward; 257; 강조는 필자) 즉 하이드의 얼굴을 한 지킬을 목격한다. 또한 엔필드가 의미심장하게 언급하는 “퀴어 스트리트”(Queer Street; 259)는 웨스트엔드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 캐리 스트리트(Carey Street) 부근이다.

부근의 나이트브릿지(Knightsbridge)로, 모두 웨스트엔드 지역으로 분류된다.⁴⁾ 타락한 도시를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웨스트엔드는 당대 호모섹슈얼 하위문화를 대표했으며, 낮에는 “런던의 가장 잘 알려진 쇼핑지역”(London’s best-known shopping area; Cocks 14)인 동시에 밤에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범죄행위가 암약하는 무법지대로 상상되었다. 하이드의 저택이 위치한 소호(Soho)의 거리는 매춘을 하는 하층계급 남성들의 접선장소 중 하나였으며, 이들을 찾아 밤마다 웨스트엔드 거리를 배회하는 중·상류층 남성들의 “이중생활”은 당대 호모섹슈얼리티를 연상시키는 키워드로 통용되었다. 와일드 역시 다양한 작품을 통해 남성들의 수상한 “이중생활”에 대해 언급한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The Portrait of Dorian Gray*)에서 밤마다 거리를 쏘다니는 도리언의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은 물론이고, 『정직함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에서 어니스트(Earnest)가 극찬하며 벌이는 “번버리”(Bunbury) 행각, 즉 가짜 정체를 만들어 즐기는 이중생활도 이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와일드 자신의 스캔들이 잘 보여주듯 이들의 비밀스럽고 사적인 밤 생활의 털미를 잡아 이들을 “협박”하는 다른 (하류층) 남성의 존재는 낮의 사회, 즉 이들이 속한 통상의 동성사회적 세계에서의 불명예를 야기할 수 있는 위협요소였다.⁵⁾

어터슨과 지킬, 래니언, 엔필드가 속한 남성사회에서는 범죄적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스캔들이나 가십으로 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불안요소다. 하이드라는 다른 정체성을 입고서조차 지킬은 추문과 협박에의 공포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소녀를 짓밟고도 태연자약한 하이드에게서 “하피들처럼 야만적인”(wild as harpies) 여자들을 달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⁶⁾ 엔필드와 소녀를 고치러 온 의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뒤 “우리가 이 일로 런던 전역에서 그의 이름이 구린내를 풍기게 할 만한 스캔들을 터트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we could and would make such a scandal out of this, as should make his name stink from one end of London to the other)며 하이드를 협박하고, 이 협박에 그는 “남부끄러운 꼴을 피하지 않으려는 신사가 있겠느냐”(No gentleman but wishes to avoid a scene; 258)는 말과 함께 군말 없이 수표를

4) 당대 런던 웨스트엔드 지역과 호모섹슈얼 하위문화, 관련 스캔들에 대해서는 Cocks; Cook; Kaplan 참조. 좀 더 넓은 범주의 섹스 스캔들을 포괄하는 연구로는 Dellamora; Walkowitz를 참조.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법적 규제에 관해서는 Harvey; Weeks를 참조할 것.

5) 한편 와일드는 자전적인 텍스트로 읽을 수 있을 『구렁텅이에서』(*De Profundis*)를 통해 “어떻게 사적인 생활이 공적인 구경거리가 되는지”(how private lives were made public spectacles; Senelick 171)에 대해 토로하기도 한다.

6) 여담이지만 이 위태로운 남성연대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원동력으로서 여전히 여성혐오가 작동 중이라는 점 또한 흥미롭다.

건넨다. 한밤중 어터슨에게 발견된 하이드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두려운 기색을 보이고, 어터슨이 누구에게서 자신에 대해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 지킬의 이름을 대며 거짓말을 하자 “놀랄 만큼 빠르게 잠긴 문을 열고 [지킬의] 집안으로 사라져 버린다”(with extraordinary quickness, he had unlocked the door and disappeared into the house; 265).

요컨대 감추어두고 싶은 밤의 비밀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모두에게 추문의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지킬과 하이드』에서 이렇게 내면화된 공포는 동성사회적 연대에 속한 모든 남성들로 하여금 서로의 “이중성”과 사적 영역에 대한 상호침묵과 상호보호를 암묵적 약속으로 여기게 한다. 엔필드는 하이드가 준 수표에 있던 서명이 지킬의 것이었음을 어터슨에게 말하지 않고, 어터슨은 엔필드에게 그날 밤 하이드가 서 있던 뒷골목이 지킬의 서재로 통하는 뒷문이나 있는 길임을 비밀로 한다. 지킬의 평판을 지켜주려는 주변 남성들의 침묵에 힘입어 하이드의 행적은 스캔들과 가십의 형태로 밤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을 쫓고, 지킬의 평판을 추락시킬 “불명예”는 끝까지 어터슨만의 비밀로 남는다.

하이드를 “이름난 살인자”(a known murderer; 317)로서 “방방곡곡에서 쫓기게”(hunted for in every corner of the land; 305) 만든 유일한 실제 범자인 “커루 살인사건”(The Carew Murder Case)은 지킬이 하이드로서 누리는 비밀스런 밤의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지킬의 평판을 보호하려 분투하는 어터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어터슨은 살인무기가 지킬의 지팡이임을 알아보고서도 이를 동행한 경찰에게 알리지 않으며, 지킬이 하이드에게서 받은 협박편지를 위조했다는 사실도 숨긴 채 편지를 자신의 금고 깊숙이 숨겨놓는다. “만약 재판이 열린다면 너[지킬]의 이름이 거론될 것”(If it came to a trial, you name might appear; 278)이라는 어터슨의 경고는 하이드가 종적을 감춤으로써 현실화되지 않고, 위조된 협박편지를 금고 깊숙이 숨겨놓은 어터슨은 지킬이 추문에서 구해져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차라리 안도하기를 택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터슨 씨는 뜨거운 공포에서 회복되어 점차 진정되었다.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덴버스 경의 죽음이 하이드 씨의 실종을 통해 충분히 보상받은 셈이었다. 이제 악영향이 물러갔기에 지킬 박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은둔을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로이 했으며, 다시 한 번 그들의 친근한 손님이자 기쁨을 주는 이가 되었다. ... 그는 바빴고, 바깥바람을 자주 쐬었으며, 선한 일들을 행했다.

As time drew on, Mr. Utterson began to recover from the hotness of his alarm, and to grow more at quiet with himself. The death of Sir Danvers was, to his way of thinking, more than paid for by the disappearance of Mr. Hyde. Now that evil influence had been

withdrawn, a new life began for Dr. Jekyll. He came out of his seclusion, renewed relations with his friends, became once more their familiar guest and entertainer. . . . He was busy, he was much in the open air, he did good. (282)

살인자와 피살자 양쪽의 변호인이자 친구로서 고뇌하던 어터슨이 살아남은 친구의 불명예가 덮어졌음에 안도하며 사적인 욕망을 우선시하는 이 순간에, “내 형제가 그만의 방식으로 악마에게 가는 것을 내버려두겠노라”(I let my brother go to the devil in his own way; 255)던 어터슨은 불안과 의혹에 사로잡혀 문을 부수고 깊숙이 틀어박힌 친구의 방 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공포의 노예로 전락한다.

지킬과 하이드의 사적 영역에 개입하려는 어터슨에게 “변호사로서”(as a lawyer; 261)의 공적 의무는 편안한 명분이 된다. 어터슨은 하이드가 은밀한 방식으로 지킬에게 가고 있을 악행을 끊임없이 염려하며 악몽에 시달리지만, 직업적인 명분 없이는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 보베이(Jennifer Beauvais)는 이를 어터슨이 사적 공간에 온전히 머무르기를 욕망하기에 “침입자가 된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서 타인의 사적 공간을 무단 침범할 수 없기”(he cannot trespass into the private space of others without feeling like an intruder) 때문이라 설명한다. 변호사라는 공적 자아를 입고서야 “그는 타인의 ‘일’에 개입할 수 있고 이를 사적 [영역]으로의 안전한 입장을 위해 이를 사용할”(he enters into the “business” of others and uses this to gain safe entry into the private; 177-78) 수 있다는 것이다.

어터슨은 (법조인으로서) 지킬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밤거리에서 벌어지는 하이드의 사생활을 넘보고, (역시 법조인으로서) 하이드의 범죄를 구실삼아 굳게 잠긴 지킬의 은밀한 서재로 침입해 들어간다. 이렇듯 그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징적인 경계를 임의로 넘나드는 동안 관습적으로 형상화된 두 영역의 물리적 경계 또한 침범되고 흐려진다. 다시 처음에 언급했던 「창가에서의 일」(“Incident at the Window”) 장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자면, 이 강렬한 공포의 순간이야말로 지킬과 하이드를 가르는 시간적·공간적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어터슨은 한낮의 뒷골목 거리 위에서 은밀한 서재 깊숙이 틀어박힌 지킬과 조우하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기 아래에서 서서 거기 있는 자네와 대화하는 일”(the best thing we can do is to stay down here and speak with you from where you are; 287)이라 제안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지킬의 얼굴 위에 떠오른 “일벌”은 다름아닌 하이드의 얼굴이며, 앞서 언급했듯 이 일벌이 만들어낸 공포는 (서재/거리의 경계를 넘어) 어터슨에게 전이된다. 그리고 이 공포 속에서 어터슨은 그 뒷골목에서 달아나 “삶의 움직임이 있는 이웃한 대로변에 다르고서야” 비로소 단 한 마디를 말할(utter) 수 있다. 낮의 거리조차도 이제는 (하이드

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노출된 시공간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지킬/하이드라는 분열된 자아로 형상화된 “남성의 뺏속깊고 원초적인 이중성”(the thorough and primitive duality of man; 307)이 런던의 낮과 밤, 동과 서, 그리고 거리와 집안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징적·물리적 구분과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⁷⁾ 이 이중성의 불안한 경계에 맨 처음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어터슨이 아닌 하이드(지킬)다. 지킬과 하이드의 구분이 가능했던 전반부에서 “소설은 결코 소호[하이드의 영역]에 있는 지킬을 언급하지 않는다”(The novel never mentions Jekyll having been in Soho; Dryden 262) 식으로 두 자아를 분명히 구분한다. 그러나 “지킬의 얼굴”(the countenance of Jekyll; 319)이 “하이드의 가장”(the disguise of Hyde; 314)에 압도되고 두 자아가 (조금 키가 커버린) 하이드의 몸 안에 갇혀 뒤섞이게 되면서 이 구분은 흐려진다.

지킬과 하이드를 철저히 분리된 두 자아로 재현하고자 분투하는 「사건에 관한 헨리 지킬의 완전한 진술」(“Henry Jekyll’s Full Statement of the Case”) 장은 오히려 이 두 자아의 구분이 점차 더 불가능해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웨스트엔드의 리젠트 공원(Regent Park)에서 대낮의 “햇빛 아래 벤치에 앉아 있던”(I sat in the sun on a bench; 316) 지킬은 갑자기 하이드로 변하지만, 이 변환 전후로 계속해서 “나”(I)라는 호칭을 고수하며 때문에 적어도 이 지점에서 하이드의 자아는 지킬의 그것과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서술된다. 그러나 “개인실”(a private room)에 들어서자마자 지킬은 “그의 삶의 위협에 처한 하이드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체였다”(Hyde in danger of his life was a creature new to me; 317)는 말로 자신과 하이드를 다시 구분하기 시작한다. 한낮의 런던 거리에서 그는 자신이 하이드로 존재함을 공언할 수 없으며, 비밀스런 방 안에 혼자 남

7) 드라이덴(Linda Dryden)은 런던이라는 도시의 이러한 이중성에 주목하여 「지킬과 하이드」를 읽는다. 그는 스티븐슨이 「가스등에의 탄원」(“A Plea for Gas Lamps”)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한 뒷골목의 램프 불빛이 오히려 범죄를 더 잘 두드러지게 할 뿐이라 우려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지킬과 하이드」의 자아분열은 도시의 분열된 사회적, 물리적 측면과 연관된다. 하이드는 불길함이자 도시현상의 위협으로 화하는 ‘도시 산책자’이다”(The division of *Jekyll and Hyde* is linked to the fragmented soci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 city. Hyde is a *flâneur* who becomes a sinister and threatening city phenomenon; 256). 나아가 그는 하이드를 “대도시의 야수”(a metropolitan beast; 262)로 명명하면서 그의 동물성을 대도시의 포식자로서 범죄자들이 갖는 특징으로 해석한다. 「지킬과 하이드」의 이중성을 문화와 자연의 구분으로 읽는 페레-메디나(Patricia Ferrer-Medina)의 읽기는 이와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다. 결국 보베이가 지적하듯 “공과 사의 역할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는 이중성의 테마와 하이드의 창조를 조합시킴으로써 전개될”(it is in combination with the theme of duality and the creation of Hyde that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public and private on issues of sexuality develops; 174-75) 수 있을 것이다.

저진 뒤에야 그것이 하이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은밀한 사적 공간 안에서 상황은 뒤집힌다: “나는 그라고 말했다. 나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He, I say—I cannot say, I; 318). 그리고 그런 그가 모두가 잠든 래니언의 집안에 비밀리에 인도되어 들어섰을 때, 하이드의 형상을 한 채 지킬의 (과학자로서의) 언어를 구사하며 래니언에게 지킬과 하이드의 육신이 뒤바뀌는 충격적 경험을 선사했을 때, 이를 목도한 래니언은 “삶이 뿌리 채로 흔들리고, 잠이 자신을 떠나며, 가장 치명적인 공포가 밤낮없이 매시간 자신 곁에 머무르는”(My life is shaken to its roots; sleep has left me; the deadliest terror sits by me at all hours of the day and night; 305) 경험 끝에 목숨을 잃는다.

하이드의 모호한 이중성은 계급적·젠더적 층위를 아우르는데, 그가 중류층 남성과 하류층 남성의 경계선상을 오가는 한편 당대 여성성으로 분류되는 특질 또한 지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이드의 계급적 경계성은 그에 대한 엔필드와 어터슨의 대조적인 판단을 통해 잘 드러난다. 어터슨이 “매우 소박하게 차려 입고”(very plainly dressed; 264) 밤거리를 쏘다니는 하이드를 두고 지킬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하층계급 남성이라라 짐작하는 반면, 엔필드는 하이드를 “내 신사분”(my gentleman; 257)이라 칭하며 그를 자신과 같은 계급, 즉 자신과 같은 동성사회적 연대에 속한 인물로 인지한다.⁸⁾ 여기서 파생되는 결과로 하이드는 (동성애공황을 내면화하는 이데올로기 담론의 핵심이기도 한) “협박 가능성”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된다. 지킬과 하이드의 자아가 뒤섞인 작품 후반부에서 이러한 양면성은 더욱 심화되어, 하이드의 유행이 언제 어디서 그의 형상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공포의 형태로 지킬을 쫓는 동안, 하이드는 그에게서 지킬을 지키려는 어터슨으로부터 또 하이드를 없애버리려 분투하는 지킬 자신에게서 계속 쫓기고 있다. 한편 비더(William Veeder)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힘과 동물적인 민첩함 따위의 모든 ‘남성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는 19세기 말엽에 특히 여성과 연관되던 것[특성들이] 쉽게 투사될 수 있는 대상이다”(Despite all his “masculine” traits of preternatural strength and animal agility, Hyde is prey to what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ssociated particularly with women; 149). 예컨대 하이드의 변덕이나 공격성, 신경질적인 성품은

8) 하이드의 계급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평자들도 견해가 갈리는데, 예를 들어 보베이는 하이드가 엔필드, 어터슨, 지킬 등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중산층 전문직 “독신 남성”(bachelor; 175)으로서 이들 남성간의 클럽문화를 공유한다고 본다. 반면 쇼왈터는 하이드를 노동계급 남성으로 보아 “하이드에 대한 지킬의 심취는 노동계급 남성을 이상적인 동성애적 대상으로 성애화하는 19세기말의 상위중산계급을 반영한다”(Jekyll’s apparent infatuation with Hyde reflects the late-nineteenth-century upper-middle-class eroticizing of working-class men as the ideal homosexual objects; 72)고 주장한다. 라고(Jane V. Rago) 역시 하이드가 “신사”라는 사실이 어터슨과 같은 다른 “신사”들의 과민반응을 이끌어내는 핵심 원인이라고 해석한다(279).

모두 당대에 여성적인 것으로 쉽게 간주되던 특질들이다. 하이드의 이런 “여성적” 특성은 실상 남성 호모섹슈얼들을 “여자 같음”(effeminacy)에 “감염”된 여성화된 남성으로 보았던 당대의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⁹⁾ 다양한 이중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드의 특성은 남성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당대의 시각 안에 다시 포섭된다.¹⁰⁾

“내 의식의장에서 다투는 두 본성에 있어서, 만약 내가 마땅히 어느 한 쪽이라 말해질 수 있다 해도 그건 그저 내가 철저히 양 쪽 다이기 때문임을 나는 알았다”(I saw that, of the two natures that contended in the field of my consciousness, even if I could rightly be said to be either, it was only because I was radically both). 하이드를 만들어낸 지킬의 욕망은 남성이 공적(이며 정상적, 윤리적인) 자아로 살기 위해 평생 억압해 두어야만 하는 자아의 남은 부분을 해방시키려는 데서 기인한다. 지킬은 선한 자아가 악한 자아로부터 야기될 추문과 불명예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아는 선한 자아에 의해 강요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자가 분리된 자아에 할당될 수 있다면 삶은 견딜 수 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해지리라”(if each . . . could but be housed in separate identities, life would be relieved of all that was unbearable; 307) 믿는다. 여기서 지킬이 가장 해방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추문과 불명예가 외부로부터의 감시의 시선이라면 양심은 내면화된 감시의 시선이라 할 수 있으며, 그는 지킬(선)과 하이드(악)을 분리함으로써 자아를 감시하는 억압 양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 억압된 부분의 정확한 이름은 “악”(evil)이 아닌 (역시 암시적으로 동성애적 욕망을 함의하는) “쾌락”(pleasure; 311)이며, 하이드의 자아가 해방된 순간 지킬은 “무언가 이상한 감각, 무언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새롭고 그 새로움 때문에 엄청나게 달콤한”(something strange in my sensations, something indescribably new and, from its very novelty, incredibly sweet) 희열을 느끼며, “자극적인 무모함, 상상 속에서 물방아처럼 구르는 착란적인 감각적 이미지들의 흐름, 의무의 속박에 대한 해법, 무명의 그러나

9) 하이드의 “여성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도안(Janice Doane)과 하지스(Devon Hodges)의 연구를 참조할 것.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스텔라와 파니의 경우 이들이 검거된 이유는 여자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불과하지만, 이 행각만으로도 당대 대중들은 이들의 “남색”을 확신했던 것 같다. 남성 호모섹슈얼을 여성화된 남성으로 정의하는 당대의 담론적 분위기에 대한 연구로는 Cocks; Cook; Kaplan 등을 참조할 만하다. 한편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층위가 뒤섞이는 이러한 현상은 버틀러(Judith Butler)에 따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는 주류사회의 젠더가 언제나 이성애에 기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버틀러가 보기에 이성애적 남성성은 동성애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남성을 (그것을 대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상실함으로써 자아와 동일시하는 멜랑콜리적 기제에 의해 “성취”(achieve)된다.

10) 지킬/하이드의 분열된 두 자아는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쉽게 남성 호모섹슈얼리티와 연관되었다: Dury; Phelan; Stiles 참조.

결백하지 않은 영혼의 해방”(a heady recklessness, a current of disordered sensual images running like a mill race in my fancy, a solution of the bonds of obligation, an unknown but not an innocent freedom of the soul; 308)을 만끽한다. 지킬/하이드를 포괄하는 그의 자아는 이 해방감과 쾌락의 달콤함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며, 오히려 두 분리된 자아를 철저히 다른 두 영역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이를 더 제대로 만끽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이드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는 밤길의 시선에 공포를 느끼듯 지킬 역시 지킬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조차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욕망, “자신 안의 짐승”(the animal within me; 316)을 떨쳐버릴 수 없다. 잠시의 해방감이 가시고 지킬/하이드는 지킬에서 하이드로 형상을 옮겨갔을 뿐 여전히 하나의 몸에 간혀 말할 수 없는 욕망과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함께 감내해야만 한다. 이것이 “정체성의 요새 그 자체”(the very fortress of identity; 308)를 무너뜨린 뒤 지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다시 한 번 「마지막 밤」장으로 돌아갈 때다. 지킬이 이 욕망과 공포를 분리를 통해 해방시키고자 하는 공격적인 자아라면 어터썬은 이 둘을 모두 억눌러 절제하려는 방어적인 자아를 대변한다. 그런데 공포의 근원이었던 하이드가 이미 죽어 지킬에게도 그에게도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터썬이 여전히 이유 모를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공포가 어터썬이 하이드 대신 지킬의 상속인으로 호명된 직후에 표출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어터썬이 지킬의 “이상한 기호 혹은 속박”의 대상으로서의 하이드를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실상 이 장에서 어터썬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하이드의 범죄(협박과 금전갈취, 살인)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어터썬 자신의 손에 의해 지킬에게 행해진다. 어터썬은 “공정한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부정하게라도, 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폭력을 써서라도”(if not by fair means, then by foul—if not of your consent, then by brute force) 그를 보아야겠다며 지킬(하이드)를 협박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끼로 문을 찍어 부수고 서재로 침입한다. 그리고 어터썬이 (마치 “정체성의 요새”를 뒤흔들어놓기를 감행한 지킬처럼) “포위자들”(besiegers; 295)이 되어 굳게 잠긴 지킬의 서재를 부수고 난입하는 그 순간, 지킬은 어터썬 앞으로 보내는 진술서와 상속인의 자리에 하이드 대신 어터썬의 이름을 써넣은 유언장을 남긴 채 청산가리를 마신다. 어터썬이 지킬의 은밀한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한밤의 사내이자 그의 수상쩍은 상속인이 되는 셈이다. 하이드(지킬)를 어터썬이 대체하는 이 순간은 가장 극단의 두 남성 자아가 언제든 서로 조우하고 중이한 장 차이로 뒤바뀔 수 있음을, 나아가 하이드가 환기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말할 수 없는 욕망이 모든 이들의 자아 깊숙이 숨어 유령처럼 그들을 쫓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인용문헌

Primary Sources

- Stevenson, Robert Louis. "A Plea for Gas Lamps." 1878. *Virginibus Puerisque and Other Papers*. London: Chatto and Windus, 1924. 189-93.
- .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6. *The Complete Stories of Robert Louis Stevenson*. Ed. Barry Menikoff. New York: Modern Library, 2002. 251-321.
- Wilde, Oscar. *De Profundis and Other Writings*. New York: Penguin, 1973.
- .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and Other Plays*. Oxford: Oxford UP, 1995.
- . *The Portrait of Dorian Gray*. Oxford: Oxford UP, 1998.

Secondary Sources

- Ambrosini, Richard, and Richard Dury, eds. *Robert Louis Stevenson: Writer of Boundaries*. Madison: U of Wisconsin P, 2006.
- Beauvais, Jennifer. "In the Company of Men: Masculinity Gone Wild in Robert Louis Stevenson's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From Wollstonecraft to Stoker: Essays on Gothic and Victorian Sensation Fiction*. Ed. Marilyn Brock. Jefferson, NC: McFarland, 2009. 172-92.
- Butler, Judith. "Freud and the Melancholia of Gend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1990. New York: Routledge, 2006. 78-89.
- .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Stanford UP, 1997.
- Cocks, H. G. *Nameless Offences: Homosexual Desire in the 19th Century*. London, England: Tauris, 2003.
- Cook, Matt. *London and the Culture of Homosexuality, 1885-1914*. Cambridge: Cambridge UP, 2003.
- Dellamora, Richard. *Masculine Desire: The Sexual Politics of Victorian Aestheticism*.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90.
- Doane, Janice, and Devon Hodges. "Demonic Disturbances of Sexual Identity:

-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s. Hyde.” *Novel: A Forum in Fiction* 23.1 (1989): 63-74.
- Dury, Richard. “Crossing the Bounds of Single Identity: *Dr. Jekyll and Mr. Hyde* and a Paper in a French Scientific Journal.” Ambrosini and Dury 237-51.
- Dryden, Linda. “‘City of Dreadful Night’: Stevenson’s Gothic London.” Ambrosini and Dury 253-64.
- Ferrer-Medina, Patricia. “Wild Humans: The Culture/Nature Duality in Marie Darrieussecq’s *Pig Tales* and Robert Louis Stevenson’s *Dr. Jekyll and Mr. Hyde*.” *The Comparatist* 31 (2007): 67-87.
- Foucault, Michel.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78.
- Harvey, A. D. “Prosecutions for Sodomy in England at the Beginn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ical Journal* 21 (1978): 939-48.
- Heath, Stephen. “Psychopathia Sexualis: Stevenson’s Strange Case.” *Critical Quarterly* 28 (1986): 93-108.
- Kaplan, Morris B. *Sodom on the Thames: Sex, Love, and Scandal in Wilde Times*. Ithaca, NY: Cornell UP, 2005.
- Phelan, James E. “Freudian Commentary on the Parallels of the Male Homosexual Analysand to Robert Louis Stevenson’s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Journal of Evolutionary Psychology* 19.3-4 (1998): 215-22.
- Rago, Jane V. “*Dr. Jekyll and Mr. Hyde*: A ‘Men’s Narrative’ of Hysteria and Containment.” Ambrosini and Dury 275-85.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1985.
- Senelick, Laurence. “Master Wood’s Profession: Wilde and the Subculture of Homosexual Blackmail in the Victorian Theatre.” *Wilde Writings: Contextual Conditions*. Toronto, ON: U of Toronto P, with UCLA Center for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Studies and William Andrews Clark Memorial Library, 2003. 163-82.
- Showalter, Elaine. “Dr. Jekyll’s Closet.” *The Haunted Mind: The Supernatural in Victorian Literature*. Ed. Elton E. Smith and Robert Hass. London:

Scarecrow, 1999. 67-88.

Stiles, Anne. "Robert Louis Stevenson's *Jekyll and Hyde* and the Double Brain."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500-1900* 46.4 (2006): 879-900.

Veeder, William. "Children of the Night: Stevenson and Patriarchy." *Dr. Jekyll and Mr. Hyde after One Hundred Years*. Ed. William Veeder and Gordon Hirsch. Chicago: U of Chicago P, 1988. 107-60.

Walkowitz, Judith R. *City of Dreadful Delight: Narratives of Sexual Danger in Late-Victorian London*. London: Virago, 1992.

Weeks, Jeffrey. "'Sins and Diseases': Some Notes on Homosexu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Workshop* 1 (1976): 211-19.

ABSTRACT

Nameless Fear and Unspeakable Desire: The Precarious Sexualities of Dr. Jekyll and Mr. Utterson

SooJung Choe

Robert Louis Stevenson's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is clearly a men's narrative, a dominant theme of which is their desires and the repression of it. The narrative focuses on the anxiety that accompanies (homo)social male bonding among the contemporary bachelor-professional class, demonstrated by Hyde and the unspeakable fear he provokes. This nameless anxiety is associated with "homosexual panic," the term Eve Kosofsky Sedgwick suggests both as a regulating force in Victorian society and as "one of the most distinctive of Gothic tropes." One of the central themes is the concept of duality. While the very existence of Jekyll and Hyde proves "the thorough and primitive duality of man," various comparisons, such as east-end/west-end London, day/night, home/street, etc., further stress and fill out dual lives of Jekyll/Hyde. Jekyll tries to satisfy his secretive, private desire in the disguise of Hyde, at the same time keeping his public reputation safe. When Utterson, as a normative heterosexual male representative, becomes suspicious of Jekyll and Hyde's relationship, he feels a deep-rooted fear which he can only describe as "something" in Hyde. The existence of Hyde and his secretive, unutterable private activities with Jekyll allude to the potential of a homosex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which is exactly what Utterson suspects. However, in the final scene, Hyde's position is symbolically substituted by Utterson, implying that his reputation as a normative male in this society is always precarious at best, so far as he is constantly anxious about the very possibility of having it challenged.

Key Words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Robert Louis Stevenson, homosexual panic, Eve Kosofsky Sedgwick, duality, homosexuality, masculinity